

Tuesday, May 19, 2009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한국 르네상스 미술전' 참관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대표 로버트 털리)회원들은 지난 17일 메트 박물관이 한국 미술품 소개와 영화 '스캔들'이 상영된 'Sunday at the Met' 행사에 참가했다. 이들은 조선왕조 엘리트층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큐레이터 이소영 씨의 강의를 듣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와 베니스 비엔날레 초청 비디오 아티스트 이혜림 씨도 참석했다. 한편 메트 박물관의 '한국 르네상스 미술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제공=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